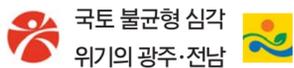


상생협력·공동대응 공감 행정통합 뚜렷한 시각차



국토 불균형 심각
위기의 광주·전남

<4> 시도지사의 해법

이웅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토불균형에 따른 인구 감소, 경제 규모 축소 등 광주·전남의 위기 상황을 맞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인터뷰 3면>

최근 이슈로 부상한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속도, 절차 등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통합과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인센티브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과 관련 시도민의 의견을 물어 민선 8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도시 광역 경제권 구축'을 행정통합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 내 현안으로 부상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는 '기부대양어' 방식을 규정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같은 의견을 보였다. 김 지사는 2021년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시 명칭 변경을 무안군과 협의해볼 생각이라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토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이 시장은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해 자생력을 갖춰야 하며 전북까지 합한 인구 500만명 이상의 초광역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김 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낙후지역을 감안한 국가 재정의 차등 배분, 행정안전부의 국가균형발전부로의 개편, 인구소멸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법적인 뒷받침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각각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국가균형발전법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는 가장 낙

후돼 있는 호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지가 산업,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등 자생력을 갖고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광주·전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동대응한 뒤 구체적인 부지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국가균형발전부로의 재편,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제2국무회의의 조속한 정기 개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도시 간 경쟁시대'이자 '다핵 분산체계'에서 각 권역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책사업과 국가기반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상생협력과 관련 이 시장은 현재의 상생발전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갈등 사안에 있어서는 전문가,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고자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지자체들이 통합을 통해 자립경제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통합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연방정부 수준에 준하는 분권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초광역 자치단체에 교부금, 예산, 조세, 권한 등을 대폭 이양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고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켰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바 있으며, 낙후지역에 대한 교부세를 높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역시 계속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부모, 사랑의 회초리? 큰일 나요! ▶6면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기 - 페스트 ▶16면

KIA '박학전문시대' 막 내렸다 ▶18면

쌀값 역대 최고가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 5.18 40주년 '광주의 빛'

23개국 10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2020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14일부터 1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열린다. 5·18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광주의 빛'에 참가한 임용현 작가의 '슬프고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작품이 5월 행쟁의 한장이었던 옛 전남도청 벽면을 스크린 삼아 상영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민간공항 무안 이전' 여론 조사...시·도 협약 파기 수순

시민권익위, 2천500명 설문 결과 뻔해 명분 쌓기용인 듯

광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광주시, 전남도의 협약 이행 여부가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영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민이 제안한 '민간공항 이전 검토'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여론 조사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21년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는 데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시민권익위는 2500명을 대상으로 11월

10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민권익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정책 방향을 권고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론조사에 앞서 TV토론회, 공청회, 현수막 설치 등의 방식으로 민간 공항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시민 여론 조사는 시·도 간 협약 파기의 수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결과를 토대로 권익위가 정책 권고를 하고, 시가 권고를 수용해 이전을 거부하는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 협약을 통해 2021년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전남 지역

의 반발로 표류하자 광주에서는 당시 군 공항 이전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함께했는데도 전남 지역의 협조가 없어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군 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민간 공항만 우선 이전하는 것에 대해 최근 광주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해왔다.

최근 언론사 여론 조사에서도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간 공항만 남겨줄 수 없다는 광주의 여론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민간공항 우선 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출구 전략'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반면 전남에서는 민간 공항 이전은 군 공항 문제와 별개로 정부의 공항개발 계획에 따른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80kg 한가마당 22만원 육박
태풍·장마에 생산비도 최고
농민들, 정부 가격개입 우려

수확철에 접어든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22만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급등 현상으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공공비축미 방출 등 가격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민단체에서는 "쌀값 정상화 과정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쌀값을 올려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14일 전남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자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가마당 21만9288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19만4772원)과 2019년(19만1912원) 시세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쌀값 상승 원인은 2019년 미곡 소진과 함께 2020년산 조생종 작황 부진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매년 수확기 쌀값 상승은 일반적이지만 22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올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만6432ha로 전년 72만9814ha 대비 3382ha(0.5%) 줄었고 생산량도 전년 374만1111t(3.0%) 감소한 363만t에 그칠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하지만 농민들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20%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 예상치보다 8만t 적은 355만t을 올해 총생산량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전량도 농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통계보다 전남지역 벼 재배면적이 6800ha가량 적은 것으로 자체 조사됐으며, 이는 무안군 벼 재배면적 총량과 맞먹는 규모"라며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적어 쌀이 모처럼 귀한 대접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산지 쌀값 조사와 함께 내달 초 최종 생산량 결과를 파악한 뒤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김성보 사무처장은 "농민들은 10년째 쌀값 24만원(80kg)을 외치고 있다. 쌀값이 비싸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쌀값이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독한 장마와 태풍 그리고 병충해로 생산량은 줄었는데 인건비와 농약값 등은 생산비는 올라 농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쌀시장을 교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양 고도도 레티놀이 눈가 및
눈주름 등을 단 2주 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 40~50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지명) 피부임상연구센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